

# 2018

에큐메니칼 목회ACADEMY

## 국내현장탐방

### 부천 새롬교회 - 마을목회

일시 : 9월10일(월) 11시-16시

장소 : 부천 새롬교회

11:00-12:00 마을목회 현장소개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마을목회 탐방

14:00-16:00 워크숍

### 워크숍 프로필

1. 약대동 마을과 가족과 여성이야기  
(새롬가정지원센터 소장)
2. 약대동 사회적 기도와 마을 심방  
(김현자 달나라토끼 협동조합  
떡장인: 새롬 교회 권사)
3. 약대동 마을 살이와 문화예술  
(선이정 세.어.림 마을 합장단장,  
새롬교회 집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  
지역NCC 전국협의회

## 차 례

지역에큐메니즘에 기초한 작은 마을교회	3
NCC에큐마을 캠프준비안	8
지역NCC 마을목회캠프선언문 초안	12
새롬가정지원센터	12
새롬가정지원센터	14
마을목회 체험간증 : 사회적 기도와 마을 심방	18
약대동 마을 살이와 문화예술	23

## 지역에큐메니즘에 기초한 작은 마을목회!

이원돈 목사 (부천 새롬교회)

### 1, 마을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최근 "영국에선 국교회 차원에서 '교회의 신선한 표현들'(fresh expressions of the church)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식의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화의 중심국이었던 영국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본당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집 카페, 빵집 등 다양한 제3의 장소에서

새로운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해 제도화돼 형식화된 교회에 익숙해졌지만,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오히려 마을 카페와 도서관과 빵집과 거리에서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성교회 건물교회들은 약화되고 있지만 이웃과 일상 속에서

새로운 관계와 만남 공동체가 일어나면서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교회가 한 지역이나 문화권의 중심에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은 지나갔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당 짓고 하는 것이 옳았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의 시대에 찾아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 가는 사역을 감당한 것이 옳았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외면당하는 이 시점에도 아직 그러한 부흥 세대의 추억으로 묵회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사회 속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모델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기존의 전통적 교회의 양식에 사람들을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시공간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1. 그러므로 이러한때에 한국교회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으로서 전도를 위해 커피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좋습니다,

2. 때로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 가는 NGO에 참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 사랑방이 되는 카페 운영도 가능하고, 작은 도서관을 통해 동네 문화 사업을 감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때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역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을 얻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의 새로운 표현인 영국 성공회에 교회 밖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기존 교회 목회와 선교에 답답함을 느꼈던 교회 밖 이들을 향해 직접 찾아가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회 김홍일 신부님은 청년빈곤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여 숨과쉽이라는 주거비용을 버거워하는 청년들이 집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터무늬있는 집을 만드셨는데 이 공유집은 오롯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출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시민출자금은 시민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청년주거안정기금에 출자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려한 교회의 새로운 표현은 오늘 3포 5포 헬조선시대에 우리 청년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주거의 문제와 청년들의 일자리를 함께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독사의 위기에 처한 우리 어르신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마을 자체가 어르신들을 돌보는 돌봄평화마을을 만드는 것을 의미 할수 있겠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100년도 안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 **왜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지고 안디옥 교회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에 묶여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교회를 넘어 새로운 지역과 마을의 지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대신 안디옥교회는 율법과 할례를 철폐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나가 이 서로 다른 것을 묶어 세우고 배제와 차별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로 나가서** 이들을 묶어 세워 유럽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과 파벌싸움을 선교로모아 새로운 선교적 에너지로 이방땅으로 사람을 파송시키기 시작했고

1. 이러한 흐름은 이미 헬라파 집사들 스테반 집사부터 시작 이 흐름이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으로까지 흘러들어갑니다,

2. 일차적으로 고르넬리오 가족의 받아들임으로 이방인에게 성령강림하셔서 폭발합니다.

3. 그리고 급기야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곳에서 3차에 걸친 이방선교가 일어나고

이때 사도바울이 등장하고 안디옥교회는 사도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일종의 유럽으로 파송하는 선교단을 구성하여 유럽에 파송하게 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폐쇄적인 율법과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

3차에 걸친 이방 선교의 캠프고 이방선교의 문을 열며 바나바와 사울을 묶어 이방땅에

파송을 했고 이렇게 교회가 문을 열자 젊은 디모데 실라 디도가 이흐름에 뛰어들어 유럽땅이라는 당시 신대륙으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눈으로 볼 때 안디옥 교회에 다문화 인종이 모인것과 바울과 바나바를 묶어 세워

유럽 세계선교로 파송한 것은 인종의 벤처 선교를 시작한것이고 후에 여기에 젊은 디모데

실라 디도등이 붙어 완전히 새로운 이방선교의 벤처선교의 틀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의 눈으로 볼때 바울과 젊은 디모데 디도 실라가 이 유럽 선교에 뛰어 들었다는 것은 안디옥교회는 당시의 벤처 선교의 베이스 캠프이었고 디모데 실라 디도등 벤처 청년 선교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 젊은이들을 안디옥 교회의 디모데와 실라처럼 묶어 세워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과 세위하우스를 세우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할뿐아니라

사회적기업거리를 만드는 벤처 선교사도 묶어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홍일 신부님과 같은 교회의 적극적 새로운 표현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청년들이 주거와 일자리가 없어 헤메로 있을 때 우리는 조금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000년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것같이 새로운 교회 운동이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 니 이미 시작되었다. 그동안 성장시대에 주변에 머물러 있어 관심밖에 있던 교회들을 주목해야 한다.** 수십년 동안 주변에서 세속주의와 맘모니즘과 정면으로 대결하며 교회를 세웠던 그들의 운동이 한국 교회를 일깨우며 희망이 될 것이다.

그들로부터 현재의 절망을 넘어 희망을 발견한다. 버릴것은 철저히 버리라. 절망에 머무는 시간조차도 아깝다.주변으로부터 오는 희망이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2. 교회 너머서 교회로 마을 교회의 등장

최근 한국교회를 둘러싼 환경은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은 위로부터의 관주도적 마을만들기이지만 한국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처럼 관이 아니라 마을교회가 진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제야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래로부터의 마을만들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생명살리기 10년 이후, 치유와 화해의 생명살리기를 새로운 목회지침으로 삼고 더구나 2018년 총회의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마을)속으로!” 로 정해진 것은 그동안 한국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던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다시 세상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세상과 마을속으로 다시 나가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듭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10년(2012~2022) 이후 우리 교단 목회전환을’ 에큐메니즘에 기초한 생명망목회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이 새로운 마을교회로의 변화를 위해 마을생명망을 새롭게 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망 목회를 시작하는 중요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교회는 본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생명마을을 다시 짜고자 하는 신앙고백으로 출발한 주님의 생명공동체이다. 이를 위해 마을교회는 교회중심 교회를 넘어 마을중심 교회, 성장중심 교회가 아니라 봉사 중심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에 생산적 학습문화, 생산과 복지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과 마을의 생명을 살리고 영적 돌봄망을 통해 하나님나라 선교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표는 치유와 화해의 온 마당을 만드는, 영향력 있는 마을교회가 되어 갈라진 지역과 마을과 사회를 통합시켜 온전한 마을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단순히 다니고 싶은 교회를 넘어, 함께 살고 싶은 지역과 사회를 향해 나가야 한다.

거룩한 교회 다시 마을속으로 실천을 위한  
노회와 개교회 마을목회선교 가이드라인

3. 이제 온 마을과 교회가 함께 생명망을 짜는 온 마을 생명교회로 나가자!!

1. 약대동 마을목회 선교 프로그램 사례

= 2016 여름 약대동 마을 학교 이야기 =

- ① 약대동 여름 마을학교
- ② 마을 세대 공감 합창단 세어림
- ③ 세 교회가 연합한 꿈이 심야식당 이야기!!



① 약대동 여름 마을 학교 이야기

= "마을 전체가 배움터 이다!" =

=2016 여름마을 학교를 여는 말씀 = 이원돈 목사 (부천새롬교회)

.....

"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희연 교육감님 중심으로 바로 알파고 이후의 교육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핵심은 바로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약대동의 꿈이 텔링더 스토리라고 하는 꿈텔스 프로그램은 바로 경기도 마을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마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2016 8월 한달동안 진행되는 약대동 여름 마을학교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 됩니다,

- 1. 첫째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여름 마을 성경학교와 가족도서관 여름 방학 프로그램
- 2. 두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꿈이 텔링더 스토리 활동이 여름 내내 이루어 질 것이고 또 토요일 마다 드루와 쉼터에서 꿈이 마을 방송국 팀 중심으로 청소년 인문학 강좌가 열리고 있고 8월26일에 꿈이 청소년 영화제에 참여합니다,
- 3. 세 번째는 약대동 세대 통합 프로그램으로 마을 합창단 활동과 8,15일날 약대동 마을 합창단의 부천통일 음악제 참여가 있습니다. 우리 약대동의 여름 마을 학교는 이미 10년의 전통을 가진 여름 마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마을 공동체 교육의 시대 우리약대동의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마을가족도서관 마을 합창단 그리고 꿈이 마을방송국과 꿈이 심야식당의 꿈텔스 친구들과 드루와 마실터의 어르신 들이 함께 어울려져 약대동 마을의 공동체 이루어 보는2016년 약대동의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 ②. 부천 약대동 세대공감 마을 합창단

세어림의 신나는 마을 이야기!!

약대동 마을 드루와 마실터에서 선이정 선생님이 어르신 국악 교실이 시작하시고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구와 합창을 지도하였는데 새롬교회 찬양대와 함께 마을 합창단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마침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꿈의 학교 사업신청서에 세대공감 마을합창단 사업을 넣어 통과되면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명실공히 약대동의 마을합창단으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약대동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새롬교회와 드루와마실터 이외에 약대동 가족도서관, 달나라도끼협동조합, 무한리필 동호회, 꿈이청소년심야식당에도 제안하여 함께하기로 하고 마침 2016년 8월 15일에 개최하는 부천통일음악회 참가를 결정하고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 ③ 세 교회가 연합한 꿈이 심야식당 이야기!!

지난해 3월 문을 연 꿈이의 심야식당은 지역 청소년의 놀이터와 같은 곳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6~10시 청소년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짜장밥 떡볶이 소고기덮밥 등 메뉴는 매번 다르다. 매주 100여명의 청소년이 이곳을 찾는다. 꿈이는 2013년 약대동에서 '꿈사리영화제'를 개최할 때 주민들이 만든 캐릭터의 이름이다.

경기도 부천 약대동에 있는 새롬교회(이원돈 목사) 약대중앙교회(이세광 목사) 약대감리교회(송규의 목사) 성도들은 청소년을 섬기기 위해 이 식당을 만들었다. 각각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예장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으로 교단은 다르지만 초교파적으로 힘을 모았다. 매주 수십 명의 성도들이 교회별로 돌아가며 장보기, 음식 만들기, 배식 등의 봉사를 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세계화시대에 위로부터의 교파와 교단간의 에큐메니즘 뿐만 아니라 지역과 마을과 같은 바닥으로 부터의 지역 에큐메니즘이 창발되어져 갈 때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치유와 화해의 생태계가 탄생 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부천 3개 교회 아름다운 연합, 다음세대에 '따뜻한 밥상'

사랑으로 청소년 섬기기 위해 성도들 '꿈이의 심야식당' 운영



## NCC 에큐 마을 훈련 캠프 준비안

목차

1. 마을 교회의 등장
2. 지역 에큐메니즘(localecumenism)에 기초한  
마을 목회를 위한 학습 목표
3. 마을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을 교육 및 선교 프로세스
4. 마을목회 컬리큘럼을 위하여 ...
- 5 \* 마을목회 첫 출발의 상상력 :  
마을의 창조적 공유지 (마을 마당과 플랫폼 만들기)
  - 결론 ; 마을 목회 출발자의 처음 출발점을 위하여

### 1. 마을 교회의 등장 :

최근 한국 사회는 마을의 귀환 마을의 탄생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 일어나며 이것이 산업화 이후의 생태사회와 기술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대안으로 등장하며 마을 만들기의 붐을 이루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치유는 공동체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을과 같은 공동체가 만이 진정한 힐링 캠프라 진단하고 있다. 이처럼 마을과 마을운동의 등장의 배경에는 고립, 차별, 배제, 모델의 산업사회를 넘어서서 친구와 초청과 환대 그리고 돌봄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유기체적 공동체와 생명과 평화의 사회 공동체의 형성의 핵심에 바로 마을 공동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마을의 귀환과 새로운 등장의 의미에는 바로 기술정보화 시대에 대한 대안으로서 마을을 보는 관점이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무인 자동차로 대표되는 기술정보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마을은 새롭게 주목 받을수 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화 시대에는 그동안의 경쟁과 소유적 가치를 대변하는 소유 중심의 낡은 세계관으로는 미래 시대를 꿈꿀수 없다는 새로운 세계관이 요청되고 있다. 다시말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적 가치가 로봇과 인공지능과 정보에 의해 조작되고 지배되는 위험을 느끼는 고도의 기술정보화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온 생명적 공동체적 가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온 생명” 을 주창한 물리학자 장회익은 이제 인류의 문명이 개체로서의 작은 단위의 ‘나’ 에서 공동체적 삶에서의 ‘좀 더 큰 나’ ,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생명으로서의 ‘나’ 가 함께 의식의 주체로 떠오르는 온생명의 정신과 문화가 이제 우리의 삶을 다차원적 온생명 문명으로 이끌어나가게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최인령·최무영, “서울 대정보교류와 온생명 개념에 기초한 ‘온문화’ 페러다임의 고찰과 학제간 융합연구 모형 제시” , 199.

이러한 온 생명적 가치에 대한 요청은 무한경쟁을 기초로 한 산업사회와 고도의 기술정보화 사회의 생명과괴와 약육강식의 모델을 넘어서 수 있는 새로운 온 생명적 생태계의 창발적 가능성으로 마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교회를 둘러싼 환경은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은 위로부터의 관주도적 마을만들기이지만 한국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



련되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처럼 관이 아니라 마을교회가 진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야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래로부터의 마을만들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여 우리는 지금, 이 새로운 마을교회로의 변화를 위해 마을생명망을 새롭게 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망 목회를 시작하는 중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교회는 본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생명마을을 다시 짜고자 하는 신앙고백으로 출발한 주님의 생명공동체이다. 이를 위해 마을교회는 교회중심 교회를 넘어 마을중심 교회, 성장중심 교회가 아니라 봉사 중심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에 생산적 학습문화, 생산과 복지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과 마을의 생명을 살리고 영적 돌봄망을 통해 하나님나라 선교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표는 치유와 화해의 온 마당을 만드는, 영향력 있는 마을교회가 되어 갈라진 지역과 마을과 사회를 통합시켜 온전한 마을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단순히 다니고 싶은 교회를 넘어, 함께 살고 싶은 지역과 사회를 위해 지역 에큐메니즘에 기초한 마을 목회로 나아가 할 것이다.

## 2 지역 에큐메니즘(localecumenism)에 기초한 마을 목회를 위한 학습 목표 :

□ 우리 목회자들이 그 목회적 상상력 가운데 하나님이 마을전체를 학습 공동체로 짜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복지 공동체로 짜고 그리고 생명의 이야기로 마을을 채워나가며 마지막으로 우리로 기도하고 심방하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망으로 마을의 생명을 짜시고 완성하신다는 상상력과 신앙고백이 생길수 있어야 한다,

□ 그리고 함께 하는 교인들과 주민들에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각자도생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맡겨진 생태계 즉 그것이 학습생태계이든 복지생태계이든 문화생태계이든 돌봄생태계이든 먼저 이 맡겨진 생태계를 살릴때 그 생태계가 생명이 우리를 되먹일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하나님나라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역으로 나를 되먹이고 살릴 것이라는 공동체적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것이 마을목회의 학습목표가 되어야 한다,

□ 예를들어지금 전세계적으로 전환 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당장 자신들의 각자도생을 위해 필요한 일보다 지역의 공동자산을 만들어 다시말해 온생명 생태계를 만들어

함께 사는 전환 마을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환마을 운동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외적전환에서 내적 전환으로라고 한다! 각자도생만을 위해 살던 마을 구성원들이 지역의 공동자산인 온 마을 생명 생태계를 먼저 만드는 내적전환이 일어날때만 진정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의 문제가 마을과 지구의 문제와 연결되고 한 사람의 희망이 마을과 지구의 희망과도 연결된다는 세계관이 탄생하고 문명의 전환도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 결론 무엇인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전환되어야 한다.우리 마을 목회의 교육목적은 이처럼 내적으로 전환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전환적 신앙이란 날마다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생명활동을 우리 마을 공동체의 삶안에 모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날마다 마을 공동체안에 이러한 생명공동체가 자라나며(양육) 결국 세상으로 나가 세상과 마을을 살리는 성령의 온 생명 (살림)운동이 우리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교회들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상상력을 함께 체험해 나가는 것이 우리 마을 교회의 학습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마을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을 교육 및 선교 프로세스

그런데 이 마을목회는 목회자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선은 지역에 거주하는 평신도 선교 일꾼과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와 동역자로 삼아야 하기에 우선 평신도 마을 선교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1. 그동안 산업화 시대를 관통했던 소비적 신앙은 나는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마을목회에 동참하는 전환적 평신도 신앙은 내가 교회이다 나는 교회로 존재한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
2. 그동안의 소비적 신앙은 목사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고,

나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 하며 나는 교회의 고객이니 팔짱끼고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서비스 잘하는가 구경하고 평가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마을목회의 시대에 마을교회에 동참하는 전환적 신앙인은 내가 교회이다라는 새로운 신앙고백으로 자기 자신이 교회가되어 선교 전도 심방, 상담등 교회의 모든 봉사의 일에 필드의 선수로 입장하기 시작한다,

3.목사와 교역자 몇몇이 뛰는 것과 교인 전부가 뛰는 것 어느것이 더 낫겠는가? 이제 마을 목회의 시대 마을교회의 평신도들은 직접 교회가 되어 마을 선교와 전도의 운동장에 선수로 나설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을 목회 학습의 목표는 우리 평신도들의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소비자에서 주인으로의 신앙의 전환이 되어야 할것이다.

## 결론 ; 마을 목회 출발자의 처음 출발점을 위하여

온 마을과 교회가 함께 생명망을 짜는 온 생명 마을교회

우리는 이러한 마을교회를 온 생명 마을 교회로 부르려하는데 이 온 생명 마을 교회의 온 생명이 라는 개념은 한 개인이라는 개 생명은 고립 자폐되어 있는 날 생명적 수준으로서는 생명을 담지할수 없고 이 개 생명이 개 생명을 넘어 온 우주과 공동체와 사회를 품는 깨어난 씨알로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생명망을 짜 나가는 온 생명적 공동체적 자각이 있을 때 비로서 생명이라 불릴수 있다는 장희익 선생의 온생명이라는 개념에서 온 것이다. 삶과 온생명” (서울: 솔 출판사, 1998)

우리가 이러한 생명 공동체적 마을을 이루려면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마을이 깨어난 한알의 씨알로서 서로 생명망으로 얽혀있다는 온 생명망적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개인 이 진정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 바로 마을 단위와 같은 작은 단위로부터 협동과 자치의 생명 생태 공동체를 익히는 생활 훈련을 하면서 지역과 마을의 생명망을 짜고 생명을 살리는 온 마을 생명공동체 운동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청년들이 마을로, 사회적 경제로, 창업으로, 바닥으로 가서 내공을 단련하는 붓이 일어나야 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도 튼튼하고 열매도 튼튼해지는 법이다. 변방은 그저 변방이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새 물결을 받아들이는 최일선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공감 마당 김석수 선생 페이스북 글)

이러한 온 생명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우선 마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학습 생태계의 씨알로 다시 일어나 화폐를 넘어 신용 믿음 신뢰 소통의 새로운 사회적 자본의 씨앗들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온

생명 마을 교회는 교회 중심적인 교회를 넘어 마을 중심적 교회,성장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봉사 중심적 교회로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에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과 마을의 생명을 살리고 영적 돌봄망을 통해 지역과 마을의 치유와 화해를 도모하는 하나님 나라 선교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의 새로운 목표는 치유와 화해의 온 마당(플랫폼)을 만드는 작지만 영향력있는 온 생명 마을 교회가 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다니고 싶은 교회를 넘어 살고 싶은 마을을 지향하며 교회와 마을을 함께 살리기위해 교회를 넘어 지역과 마을과 시민 사회로 흩어지는 온생명 마을 교회를 지향해야 할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 마을의 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지역 카페나 어르신 쉼터와 같은 마을의 근접공간과 사이 공간으로 나가야 할때이고, 이러한 마을과 지역사회의 근접 공간을 통해 교회와 마을의 신나는 복음적 이야기(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선교적 모델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제 협동과 공유의 시대 우리는 예수님 처럼 꼭 회당 안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만 어울릴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회당 밖 마을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 함께 마을의 생태계를 만드는 협동과 공유의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산업화 시대이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경쟁과 소유의 낡은 가치관을 버리고 협동과 공유의 “새 술은 새 부대” 담으라는 새로운 생태계와 새하늘과 새땅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 일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로 따복 공무원 약대동 방문 교육중 새롬교회 이승훈 전도사님의 마을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새롬교회와 약대동이 꿈꾸는 온마을 생명교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온 생명마을교회는 어린이 어르신 청소년등 온세대가 만나는 세대공감의 축제와 만남의 장이다. □. 온생명 마을 교회는 사회적 경제와 공유 경제 등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며 가난한 이웃들과 연대하는 온 생명 마을 교회이다. □. 온생명 마을 교회는 헬조선, N포시대, 인구절벽, 불안사회에 대한 안을 제시하는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는 온 생명을 추구하는 마을과 교회이다. □. 공동육아, 양육의.식.주. 풀뿌리운동 바른 먹거리 마을만들기(이웃의 회복)등 생명 평화 연대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청년협동조합 돌봄 공동체 마을학교를 꿈꾸며 마을을 생명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온 생명 마을 교회이다.

### **\*제안: 마을목회 쉼터클림과 에큐메니칼 훈련 캠프를 위하여 .**

- 1.마을의 학습 복지 문화 생태계에 대해 현장 체험 및 학습을 하고  
그중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창조적 공유지대를 상상해 본다
- 2, 마을의 창조적 공유지대 형성을 위해 다른 지역과 마을의 창조적 공유지대  
즉 창조적 선교 복지 교육 문화 기관 현장 방문 및 실습에 대해 참여해 본다
- 3, 마을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공방 어르신 쉼터/그리고 협동조합등을  
현장 실습 경험 함으로서 마을의 학습 복지 문화생태계를 배우고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와 지역 교육 선교 문화를 배운다,
- 4, 마을 목회의 첫 출발은 거대한 것 보다 작고 접근 가능하고 쉽게 출발할수 있는  
단순한것일수록 좋다, 교인들과 마을 주민 연결하여 처음 출발 5-10명 정도  
학습 복지 문화적 마을의 창조적 공유모임 구상 하고 지역과 마을에서 5명 정도의  
지속가능한 학습 소그룹 한 두 개를 세워보는 것으로 마을목회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보자!

\* 이를위해 마을목회 훈련캠프의 첫 출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1. 이처럼 마을목회는 목회자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선은 지역에 거주하는 평신도 선교일꾼과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와 동역자로 삼아야 하기에 우선 평신도 마을 선교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2. 이러한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역하는 마을 목회와 선교 커리큘럼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 마을목회의 교육/선교/목양론과 마을생태계 연구 =

하나님 나라의 공적 영성 훈련;

지역사회와 마을을 위한 기도와 심방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방 짜기

평신도 교육과 지역사회 이해 시민사회 이해 ;

지역의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 공부

지역사회이해와 지역자원 이해를 위해

마을경제 사회적 경제(사회적 자본)/ 평생학습 / 스토리 텔링 공부

지역과 마을 선교는 현장중심적이 되어야 하기에 적어도 전국의 3곳 정도의

지역 훈련 캠프 설치와 지역과 교회 탐방 훈련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 예: 마을 선교 복지 교육 문화기관 현장실습 / 마을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공방 어르신 쉼터

그리고 협동조합등을 현장 실습 경험 함으로서 마을의 학습 복지 문화생태계를 배우고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와 지역 선교를 배운다,

프로포절작성과 같은 실무 훈련과 마을 선교현장 실습

## 지역NCC 마을목회 선언문 초안문

### 각자도생의 미래알 사회를 넘어

### 더불어 사는 세대공감 돌봄 평화 공생마을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4.3 4.16이 이어져 촛불이 되고 그 촛불이 남과북을 만나게 하고 그 남과북이 평화의 바람을 가져오고 있는 이 촛불이후의 성령 강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바람으로 그동안 우리를 막고 서있었던 경계과 담이 즉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

주님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은 분노에 사름잡혀 험땃고 힘집내고 싸우는 낡은 분단과 냉전세상에서 막힘담을 열고 원수 맺음에서 그리스도안에 평화의 사도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일에도 아이들을 입시학원에 보내어 우리 마을의 놀이터와 교회가 학교가 텅텅비어 나가게 한 것을 회개하며 그동안 우리가 상대방을 증오했던 반공교육과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입시중심의 낡은 입시동맹의 교육을 멈추게 하옵시고

이제는 교회와 마을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명중심의 의 평화교육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복이있어라.평화를위해 일하는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아들이라 불릴 것이다.(마태5:9)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고도 성장 모래알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각자 도생적 모래알적 삶이 마치 신앙처럼 맹신화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 이미 고갈되어 있고 경쟁에서 공존으로 효율과 속도에서 돌봄과 나눔과 공존이라는 가치로의 변화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며 반발할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모이면 아파트값이 올랐네 말았네 하는 말만 하지, 불로소득이나 경제 양극화 문제를 말하지 않았고 성서에서는 가르치는 토지의 공유와 사회정의를 애써 외면하오직 개인의 안일과 구원을 신앙의 전부임을 알고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 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 청년들이 혼밥각밥을 넘어 협동조합 마을카페에서 함께 청춘만찬을 나누며 바리스타의 꿈을 나누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청소년 청소년들이 이제 각자도생의 모래알 사회를 넘어 세대공감 돌봄 평화 공생마을로 가는있음을 기뻐하며 이것이 우리 교회와 마을의 소중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마을 어르신중 우울치수가 제일 높은 분이 계실 때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회와 마을 심방팀이 마을을 여러 번 왔다갔다 하시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챙길 때 그 어르신의 우울증 지수가 너무 좋아지셨다는 기쁜 소식을 계속 듣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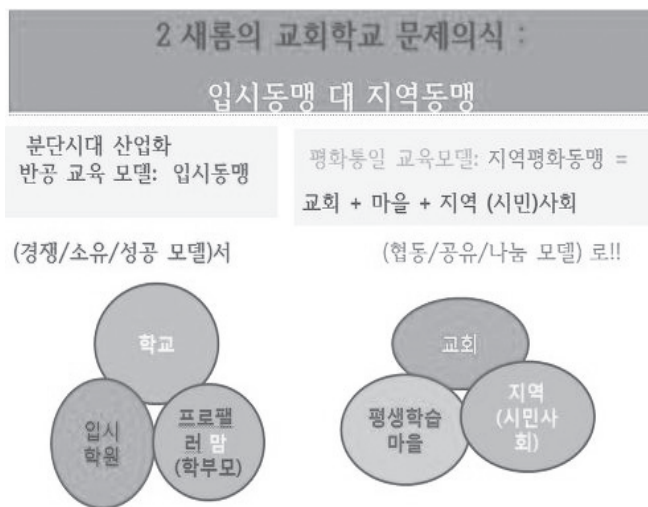
사도행전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라는 말씀은 우리 청년들을 단순히

교회안에 전도의 대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는 각자도생 사회와 마을에서 협동과 공생의 공동체적 원리를 나누며 더 나아가 협동과 공생을 넘어 사회적 연대를 가르치길 원합니다,

이제 교회와 마을과 지역사회는 우리 청년들의 경험과 기회의 장이 될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일하고 소통하고 연대하고 참여하는 "공론장이 되길 원합니다, ‘

그리하여 지역과 마을에서 공적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마을 주민과 시민으로 키우고 지역과 시민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정의제나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참여 연대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힘껏 돕기를 원합니다,

2018 5월 28일 대전 고백교회에서 모인 우리 지역NCC 에큐메니컬 마을 목회 위원회는 2018년 4.3 4.16이 이어져 촛불이 되고 그 촛불이 남과북을 만나게 하고 그 남과북이 평화의 바람을 가져오고 있는 이 촛불이후의 성령 강림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각자도생의 모래알 사회를 넘어 세대공감 돌봄 평화 공생마을로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아멘!!!



새롬가정지원센터



새롬교회 오세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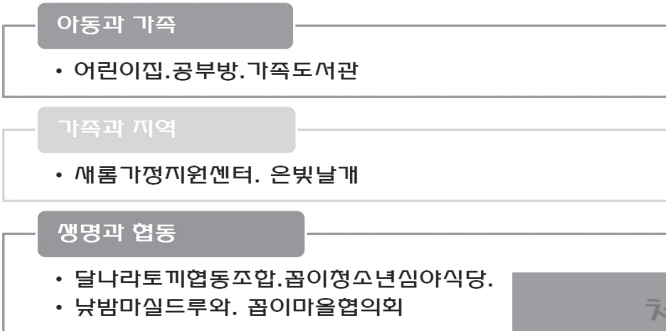
1. 약대동은?

1. 부천에서 가난한 마을(약대, 춘의, 범박, 고강, 원미동)중 탑3를 차지하는 깊은 유래와 역사를 가진 마을
2. 90년대에 비 오는 날 장화를 신고 출근하던 동네
3. 마찌꼬바(영세가내공업)들의 주변 주택가
4. 2015년 현재, 고층아파트와 낡은 주택이 공존하며 묘한 갈등과 소외가 있는 곳
5. 조부모양육가정과 늘상 폐지 줍는 노인들
6. 골목길이 살아 있는 정겨운 곳
7. 복지관이 하나도 없음

하지만

1. 부천에서 마을만들기가 시작된 곳(고강, 약대)
2. 현재 나눔과 교육, 문화, 복지의 생태계가 꿈틀거리는 곳
  - 떡카페 달나라토끼, 콩나물신문, 의료협동조합
  - 어린이집, 공부방(지역아동센터), 마을도서관
  - 꿈이청소년심야식당, 꿈이마을방송국
  - 노인자치연구소 은빛날개(노인교육, 복지, 문화)
  - 꿈사리영화제(마을영화축제)
  - 낮밤마실드루와

약대동 공동체 시기구분



처음에 탁아소(어린이집)

1990년 탁아소는 저소득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을 보호

- 공장에 나간 부모들, 하수도에서 노는 아이들
- > 그러다가 사교육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요구
- 공부방(지역아동센터)
- \*\* 사정이 조금 괜찮아지면 떠나고 싶은 약대동
- > 안되겠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을만들기'
- 새롬가정지원센터 설립:
  - : 도서관에서 주부모임 진행'어머니학교'
  - :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적절한 네트워크로 지원

## 가족과 마을(2000~2010)

1998. IMF 이후 가족해체와 붕괴

### 마을로 나온 새롬가정지원센터

주부성장프로그램(학습동아리)

사각지대 가정지원 네트워크 형성

동네아동프로그램-마을을 놀이터로

마을가족, 공동체 가족

수요인문학(주민들과 함께 하는 인문학)

토요마을학교 시작(주5일제 문화프로그램)

## 공동체 일꾼이야기

1. 일꾼들은 다 약대동에서 살자!
2. 지역에서 만난 어린이집 부모가 교사로
3. 지역에서 만난 어린이집 부모가 카페매니저로
4. 공부방 꼬마제자였던 아이가 청년이 되어  
마을로 돌아와 청소년밥차 일꾼으로  
(지금의 청소년이 마을일꾼으로 실습)
5. 도서관에서 만난 엄마가 자원봉사자로

-> 이렇게 지역에서 이용자.수혜자가 서비스종사자가 되었다.

## 그러다가 은빛날개로

2003년부터~

-> 자원봉사단체인 은빛날개: 홀로어르신 도시락배달

-> 밥상공동체 진행 (현재 공동체 어르신 100여명)

날으는약대할매-인형극단

미디어 작업 '나는행복해' '삼정동인생사진관'

영화제작-'백점짜리내인생' '청춘꽃매' '드리머'

우리스타일합창단. 할매랩퍼단

실버방송단'할수다'(할매들의수다)-19금라디오극장+주둥이배틀



## 그러던 어느날

- 이 땅의 청소년들 위기 증가
- 이름없는 독지가의 출현
- 거리청소년 급식소 탄생
-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꿈이청소년심야식당' 탄생하다.
- 지역내 종교단체, 주민들 자원봉사연합체 결성
- 교육청 및 주변복지관 협력
- 어르신봉사단 (제일 중요한 분들)->세대공감의 희망



### 이 모든 것들의 동력은?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1. 소모임과 학습이 빚어낸 것들
  - 수요인문학->청노답/ 성서아카데미
  - 청년아카데미->꿈이마을방송국
2. 마을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공부
  - 어린이집, 센터등 실무자들이 한 달에 한번 모임
3. 노인학습/ 청소년학습과 소동아리
  - 인문학/ 지역사회 참여/세대공감
4. 마을복지사 '언니들공부방'->2018 (갱년기동아리)
  - 빼빼빼로 탄생-> 마을축제에서 워너원이 되다



젊은이들이여 약대동으로 오라!!

우리 약대동은 이제 다양한 주택과 아파트, 빌라로 활기찬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골목길은 불편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웃간의 눈맞춤이 가능한 유일한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 무척 재미있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 협동조합떡카페 달나라토끼, 마을카페인 달토도 만들었다. 주민자치센터와 힘을 합쳐 복지문화교육의 생태계 마을지도도 제작해서 동네에 걸어놓았다. 청년들이 꼬이마을방송국을 만들고 마을의 교회들과 주민들이 함께 꼬이청소년심야식당을 운영한다. 우리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려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신다.

우리 새롬교회, 새롬가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작은교회, 마을교회를 추구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움직이는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약대동에는 아직도 복지관하나 없는 사각지대다. 하지만 전통시장도 살아있고 구수한 인사가 남아 있는 신나는 마을이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인심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랑스런 동네이다.

나는 약대동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다. 지원을 보내주시는 지역의 목사님, 공무원, 국회의원, 시의원, 의사, 변호사, 교사, 각계각층의 친구들을 알게 되었다.

마을영화제인 꼬사리영화제를 기획하면서 자치단체의 지혜로운 마을 어른들도 알게 되고 나의 소중한 인연을 좋아해주고 마음 가는대로 지원도 해주는 언니들, 동생들도 생겼다. 꼬이청소년심야식당을 시작하면서 고개를 낮추고 귀기울이게 하는 청소년들의 마음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

나는 약대동에서 살아가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엄마, 아빠, 어르신들 덕분에 더 성장했다. 사람을 존경하고 약자의 생활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내가 세상에 보내진 소명의식도 이분들 덕분에 생겼다. 돌아보면 역시 나는 누구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았고 그 덕분에 나라는 인간도 더 잘나졌다. 감사한 일이다.

약대동은 앞으로 더 재밌어질 것이다. 젊어지고 생동감있게 서로 교류하며 마을을 신나게 가꿔갈 것이다. 젊고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젊은 일꾼들에게 참신함을 배웠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이여 약대동으로 오라!!

## 마을목회 체험간증 : 사회적 기도와 마을 심방

김현자 : 달나라토끼 협동조합 떡장인/ 새롬 교회 권사

### 1, 예수님을 만난후 협동조합의 시작

저는 1995년도에 동생과 함께 큰시루라는 이름으로 떡집을 하게 됩니다,

당시 동생은 목욕탕을 운영하며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나한테 와서 앞으로 떡집은 승산이 있다며 많이 배운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떡집은 안한다 그러니 해볼만한 사업이다 라고 하며 (당시 시장에서 멋드러진 한옥집같은 매대와 안에는 컴퓨터를 놓고 고객관리를하고 매장에는 카페처럼 꾸몄습니다) 이미 시장조사를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매출이 올라 점점 큰 곳으로 옮기면서 키워 나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위해 감사를 할때 떡 업계의 삼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erp 프로그램과 특허낸 찜솔등 승승장구하던 사업은 15주년을 넘으면서 위기를 맞고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돌아가신 두 어머니는 든든한 믿음의 기둥같은 분)

갑자기 닥친 위기와 연이어 돌아가신 친칭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보내면서 암울하게 살고 있을 즈음 2011년 협동조합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날 수요일 중직자 성경공부 시간에 시편을 공부하던중 다윗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셨다는 목사님의 해석을 듣고 나의 마음에 빛이 들어온듯 변화하게 됩니다

도무지 기도를 할수 없어 주기도문만 외우며 일터와 집 그리고 교회만 오가던 나에게 일상이 새롭게 닥아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일에 지쳐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일터로 갈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 자체가 기도 였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을 기도로 받으실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2012년 한창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을때 새롬에서는 교회에 다니느라 여행을 잘 못하는 교우들이 많은 것을 중보기도회에서 생활나눔하다 가을 여행예배를 기획하게되고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서 여성은 성모도로 남성들은 별교 순천을 거쳐 지리산에서 농사를 짓고계신 새롬과 연관이 있으신분인 송현수 (지금은 달토협동조합 감사) 선생님이 계신곳에서 일박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성희 안수집사님이 준비위원장이 되어 협동조합을 결성해 온 것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김현자,전용삼을 살려야 한다).

그후로 새롬에서는 협동조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며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를 얘기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떡 기술을 매개체로 해서 유럽에서도 유행하는 마을 사랑방 (정치,사회,마을,가정 얘기) 같은 제3의 공간으로 떡카페를 하기로 합니다.

몬드라곤같은 마을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1

대기업이 골목시장까지 접거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소자본을 가진자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었고 조합원 모두가 영업사원이 될테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2013년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받고 교육후 뒷풀이에 참여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달나라토끼 떡카페에 같이 할 사람을 모았고 6월에 새롬교회 창립기념일을 계기로 (6월두번째 일요일) 발기인 대회를 하게 되고 그때 40명정도가 참여하였으며 적극적인 사람들로 이사회를 결성하고 지금의 카페가 있는 곳을 정하게 됩니다.

떡방은 잘 할 수 있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같이 참여를 하고 바리스타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바리스타 혼자 아침10시부터 밤 10시까지 볼수는 없잖아요~

교대해 줄 사람도 필요 하지요 그리고 떡방도 혼자 할수없어요 떡 일은 노동의 강도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많습시다 그래서 동네 떡 방앗간 같은데 보면 거의 부부가 하든지 가족들이 많이 도와서 하는 형태로 운영한곳이 많지요 그래서 협동조합원들이 모두 가족과같은 공동체적인 사고가 있어야 잘 할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떡방과 카페가 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카페에 들어오면 커피냄새가 나야하는데 떡 냄새만 난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도 그렇것이 떡은 어디서든 전화만 해도 만들어 배달도 가능한데 카페는 오시는 손님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와도 차 한잔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량의 떡만 해 오던 나는 소량의 떡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음에도 오히려 주문이 많이 들어왔고 여름에 시작한(7월말) 떡은 바로 추석을 맞이하면서 바쁘게 보냈을뿐만 아니라 매출도 예상보다 많이 올르게 됩니다.

조합원들의 카톡방을 만들어 일이 많을때는 광고를 하면 시간되는분들이 와서 도와주기도하고 그야말로 조합원모두가 주인이되고 영업사원이 되었던 겁니다,

지나가는 동네분(조민자님) 을 불러서 하루만 알바로 도와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정직원까지 합니다 카페의 매출로는 어려움이 많은데 떡방은 그런데로 매출이 오르고 그러다보니 떡방이 너무 좁아서 점점 카페를 점령하게 되고 2년의 계약기간도 되고 떡방은 옮겨서 살리고 카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카페에 근무하던 사람도 이미 오전오후 그리고 주말 등 카페에 관련된 사람도 이미 세명이나 되는데...

## 2, 한고비 따로 또 같이

처음사랑을 회복하라는 성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제3의공간 마을 사랑방 등등의 처음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경제논리만 서게 된것이지요 다시 운동이 시작됩니다

운영한지 1년조금 넘어서면서 YMCA협동조합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사무국장으로 오셔서 (처음에는 봉사하다가 나중에 급여지급)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대표역할과 총괄 운영을 맡았고 떡방 3명, 카페3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카페와 떡방에 있던 모든사람들이 직원협동조합개념으로 백만원씩 투자를 하고 저도 어려운중에 월급중 일부를 3개월동안 나눠서 백만원을 마련하고 딸 이름으로 2백만원 도합 3백을 투자합니다 (당시 우리집은 전제산)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만 투자했던 교인들중에 좀더 투자하거나 적극개입하고 외부에서도 의미를 알고 투자해 주고 결정적으로 새롬교회 이춘림권사의 퇴직금 일부를 투자하여 책임자로 오면서 카페는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카페는 떡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떡방은 담쟁이 문화원 지하 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썩 맘에 들지는 않았지만 떡집만 독립할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았다

원래 떡집은 1층에서 떡만드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어야 보고 사거나 지나가다 들어와서 사게 되는데 지하에서 하니 어렵게 된 것은 뻔한 것인데 지금도 왜 지하를 선택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난 협동조합교육을 받으면서 그후로도 계속 그 건물 어딘가에 떡방과 카페가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늘 지나갈때마다 기도를 했었다

(일부러 기도하기위해 그 앞을 지나가기도함)

그러나 지금 현재의 카페와 식당을 1,2층이 차지하고 식당도 협동조합으로 할수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인은 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일단 떡방이 들어왔으니 파이팅을 외치며 열심히 했으나 영업능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의 벽에서 못 헤어 나온거 같습니다.

넓은곳이긴 하나 유지비와 급여등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자활이나 국가 보조를 받기위한 노력도 하게 됩니다

한사람 훈련되서 스스로 할만하면 나가고 그만두기를 반복하니 나도 지치게되고 체력의 한계도 느끼게될때가 많아 집니다

2017년 여름까지만 하고 나도 그만 두려는 계획을 가지고 의욕도 기력도 없어질 무렵 사무국장으로서 계시던분이 그만두겠다고하고 전문경영인이나 달토떡방을 운영할 새로운 사람을 찾게됩니다

### 3,중보기도와 사회적기도

중보기도회는 처음 각 구역에서 구역을 대표해서 한 사람씩 기도하는 사람을 정하기로하고 거기서 지정된 한 사람이 그 구역을 대신해서 기도회를 한달에 한번씩 하다가 참여율이 너무 없고 나 혼자거나 목사님과 둘이서 기도회를 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 봄에는 구역예배를 드릴 때 각 구역에 참여하여 심방겸 그 구역의 생활나눔속에서 기도할 끼리를 가지고 중보기도를 했고

가을에는 우리교인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어르신 등 지역선교위원회의 심방이 필요한 가정을 정하여 관련선생님이나 원장님과 함께 중보기도위원이 같이 가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강력한 기도가 김현자 권사님의 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동참할수 있기를 기도하는데 어느날 최권사와 마집사가 새롬에 오게 되고 같이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제목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둘째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갖게되며 다음해에 큰아들까지도 결혼을 하게되고 새롬이 축가도 부르고 목사님의 주례도 있고

중보기도는 이제 개인과 가족에서 마을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이 곧 사회적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후에 더 발전하여 달란트가 있는 최권사의 활약으로 심방팀장이 되어 지금의 돌봄사역까지 연결이 되게 생겼습니다

### 4, 중보기도의 응답

중보기도회는 다른부서와 달리 특별하게 어떤 계획이나 성과가 눈에 보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누구도 기도는 부담 스러워 하는 부분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번 여행예배후에 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까지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두번째 여행을 중보기도회가 너무도 과감히 추자도를 가게 됩니다

최권사님과 마집사님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 추자도에 계셔서 초청을 하게되고 우여곡절끝에 그 어려운 추자도를 여행하고 제주도까지 여행합니다 (주일예배를 제주도에서 드림)

다음해에는 그 여행이 인연이되어 추자도에 계시던 진영훈목사님이 고흥으로 가시게되고 또 고흥으로 초정이 되어 여행을 합니다 그곳에서 평균나이가 80인 어르신들이 예배시간 두시간전에 오셔서 연습을하고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는모습을 보면서 크게은혜를 받게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한 구역식구가 다 여행에 참여를 했고 고흥과 별교 순천만 갈대숲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길에 최권사와 나 목사님이 한 차를 탔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도 훌륭하게 찬양대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찬양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중보기도의 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말에 선이정집사님 가족이 새롬에 오게되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기도도 많이 변하게 되고 교인들의 기도문을 후보에 올려서 예배순서에서 기도문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제주강정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학신입생들이 있는 건물이 무너져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젊은청춘이 속절없이 가버리는 것,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기도, 인간의 이기심과 부도덕함과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며 마을이 살아야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위해 쏘이 심야식당이 플랫폼이 되고 마당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때 이슈가 있을때마다, 나라와 지역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송구영신예배를 광화문에서 촛불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마을에서도 평화를 말하고 돌봄을 말하고 드디어는 세교회가 연대하여 마을을 돌보는 돌봄까지(문제인 케어)이르게 합니다.

### 5,다시 시작한 희망을 보며

일년반을 마치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것 같습니다,

지금 구성원은 협동조합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떡 기술을 배워 직장인으로 살려고 하는것도 아닐 뿐더러 공동체에 대한 것은 더더구나 모릅니다 오로지 내가 일한만큼의 대가만 받아가면 된다는 생각이 많은분 들입니다 그래도 자꾸 반복해서 하다보니 훈련이 되어 주문된것이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일머리는 잘 알게되어 말만하면 척척 해 내는 정도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1년이 넘는동안 전문경영인이 투입되어 운영했으나 그분은 협동조합 혹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듯하고 아직도 힘이드는 일은 기계화하고 대량생산하여 대량판매를 할수 있는쪽만 더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나도 남편도 나이가 들어 그 모든일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 임에도 다시 일으키는 일에 전용삼씨가 뛰어드는 것은 단지 협동조합으로 시작한 떡집으로 한 가정이 혹은 한 공동체가 성공하여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려는 것입이다

그리고 다행히 이사장님도 지금까지 고생하고 버텨왔으니 성공사례로 남기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보이지않는 지하에서 이제는 다시 또 투자가 있더라도 1층에서 (보이는 공간에서)

약대동이 아니더라도 잘 할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런장소로 옮기더라도 좀더 젊은 사람으로 일꾼을 만들어 보자는 의기투합이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일하고 여기서 일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몬두라곤 같은 2014년기준 257개의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스페인에서 매출이 14조8천억이 되어 기업순위가 7위라고 하는데) 그런 협동조합의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원하고 있고 이런 공동체,

(약대동에는 돌봄케어협의체 라고 해서 세교회가 연합하여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가 있는 마을, 그리고 협동조합으로의 한가족처럼 온전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떤사람은 삼촌처럼 어떤이는 고모 같은 혹은 이모 같은 역할을 하고 할머니도 손자도 있는

골목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협력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나에게주신 대단한 기회

송구영신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월1일 떡방 일을해야하는 관계로 일찍 잠이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새벽2시가 되었습니다 아쉬움에 궁금하여 카톡을 보니 젊은 청년들과 백집사님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다 이사갔던 친구들의 청년이 된 모습에 감동이 되었고 곰곰 생각을 해 보니 낮에 있었던 일이 불현듯 예삿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마을합창단 송년회에서 한국일교수님의 한마디와 목사님의 한말씀 그리고 청소년들이 단원으로 있었던모습

그것은 2013년 말 즈음 나와 목사님이 하던 대화입니다

목사님은 이 카페가 살려며 소그룹이 20개 정도 돌아가 줘야한다고 하였고 난 이동네에 작은 학교가 생겨서 젊은 청년들이 학원 같은 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하게되면 카페에도 자동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드나들게 될거같으니 기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학습시대에 학습공간으로 카페가 지정이되고

마을학교 썬텔스가 그렇고 한국일 교수님의 제자인 이승훈전도사님이 카페의 대표가 되었고 마을 학교를 운영하여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카페를 드나들고 있는모습과 이미 마을합창단도 그 청소년들중 일부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카톡문자로 보낸 것을 소개 하겠습니다

(목사님 생각 나십니까?)

약대동에 작은 학교가 생겨서 청년들이 공부도하고 카페도 청년들이 드나드는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 하자고 했던때를요~

몸이 많이 힘들어서 일찍 한잠자고 일어났는데 두시가 되었고 생각하다보니 한국일교수님을 통해 이승훈전도사님이 새롭에 오게된 것이 그 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작인거같아 마음이 설레어 잠이 쉽게 들지 않네요 이제 청년들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꿈이 현실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네트워크 세대공감을 낮에 말씀하셨는데 미용실도 접수하는날이 멀지않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무실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새벽에 감히 목사님한테 이런 글 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다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그 감격과 감동에 감사하고 좋고 그래서 많이 많이 울었던 날 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날마다 침상을 적시나이다 하는 시를 생각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본회퍼목사님을 소개 하면서 빌립보서 1장 1절~6절까지의 말씀을 보라시며 선한힘에 감싸여 라는 찬양을 들어보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기독교회관 7층에 있는 기독교사회봉사회(디아코니아) 교육이 있는데 공부해 보는게 어떨지 권하여 주셨고 그길로 난 신청을하고 3월부터 시작되는 사회봉사회에 대한 다양한 15강 즉 3개월동안 6시간반씩 투자하여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봉사여행을 다녀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었고 그동안 여자는 돕는베필 혹은 도와주는 역할 남편이 잘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 했는데 공부하면서 이런일을 내가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떡방도 사람을 키우기위해 노력하고 떡을 만드는 것이 먹거리를 우리손으로 만들어 먹고 믿을수 있는 아이들의 간식 노인들이 맘놓고 손주들의 간식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날이 될수 있도록 그런 떡 만들기를 할수 있는 협동조합이 되길 기도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걸치레로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1장을 읽다가 마음에 꽂힌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맺음.

## 약대동 마을 살이와 문화예술

새롬교회 선이정 (들꽃찬양대장, 세.어.림단장)

- ◆세대공감 어울림 마을합창단(세·어·림)과
- ◆약대동 마을카페에서 열리는 작은음악회 ‘달song’ (주민라이브)

### 1. 참여 배경(동기)

- \* 하나님 때문에 = “나의 의지 보다는 주의 인도하심따라”
- \* 청년시절 장청활동(기독교청년운동)을 통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 형성  
= 아동·청소년·청년시절의 교회학교 교육과 활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교회학교 교육과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
- \*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고민(교회의 역할중 하나라고 생각함)
- \*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써 나의 역할을 찾으려 노력함.  
= 헌신의 마음과 봉사의 진정성이 없으면 장기화되기 어렵다.

### 2.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 \* 지도자(목회자)의 가치관과 방향성  
& 함께 할 사람들(공동체)과의 생각의 일치가 이룰 때.
- \* 필요가 요구될 때(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 \* 프로그램의 진행에 맞는 사람(인재)이 만나야 이룰 수 있다.

### 3. 진행과정

- 세·어·림 마을합창단
  - \* 2016년 5월 부천평생학습센터 찾아가는 배달학습에 선정되어 시작됨.  
(10회 강사비 지원)
  - \* 2016년 8월 통일음악회참가(한반도평화상·2등) - 상금 백만원
  - \* 2016년 9월 세·어·림 마을합창단 결성
  - \* ~~~ 2018년 현재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노래)  
= 2016년 결성되어 2018년 현재까지 월3회 정기적으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어림 합창단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노래하며 세대공감을 이루어 나가는 합창단입니다.  
함께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합창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주민라이브 ‘달song’

=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가수도 되어보고, 악기도 연주하며, 춤도 추고, 직접지는 시낭송

도 하며, 직접 작곡한 노래를 부르기도하는 열린마당 입니다.

\* 2017년 5월 부천문화재단 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

( 공연 및 운영비 지원 )

~~ 10월까지 총 16회 진행 (월3회)

\* 2017년 11월 평가회를 갖고, 월1회로 지속하자는 결의에 따라

월1회 ~~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음.

\* 2017년의 주제는 - 약대마을 작은음악회 주민라이브 '달song'

2018년의 주제는 - 꿈꾸는 마을 예술터 주민라이브 '달song'

\* 매월 주제를 정하여 주민 참여자는 주제에 따라 공연을 준비합니다.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연마당이 마을(내가 사는 동네)에서 열림으로 마을문화를 생각하게 되고, 전문 연주가가 아니어도 관객 앞에 서서 연주할 수 있음에 즐거움이 두 배 되는 그런 열린마당입니다.

@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찬양대에서 마을합창단으로 그리고 주민라이브 공연장(달song)으로 또한 마을문화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마을문화 아카데미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카페(카페문화)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원돈 목사님께서는 약대마을 거리문화를 꿈꾸자고 하십니다.

#### 4. 현장 진행과정에서의 생각

- ① 내실 있는 마을운동 전개를 위하여 활동가들 간에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투명성)
- ②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활동가들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 ③ 프로포절 선정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운영비·강사비)
- ④ 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프로포절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작은 교회의 현실)
- ⑤ 리더자의 열정과 함께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때 활동가도 즐겁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
- ⑥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밀받침될 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활동가의 지도력)

#### 5. 나의 바램

지속적인 진행을 통하여 함께 공감하고 즐거운 마을운동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있는 인재가 발견 되어지고 성장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Memo

